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의 질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이 욱 선

신동초등학교
전문상담교사

남 숙 경[†]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부교수

본 연구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의 질의 관계에서 자아분화가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학교 2, 3학년 300명을 대상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PCS-YSR), 자아분화척도, 그리고 또래관계의 질 척도를 포함하는 설문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과 SPSS PROCESS macro 3.4의 model 4를 이용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 자아분화, 또래관계의 질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아분화, 또래관계의 질과 각각 부적 상관을 가졌고, 자아분화는 또래관계의 질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의 질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자아분화가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의 질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중요한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래관계 질을 높일 수 있는 개입 방안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 논하였다.

주요어 : 부모의 심리적 통제, 자아분화, 또래관계의 질, 중학생, 매개효과

* 본 원고는 이욱선(2021)의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일부 수정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남숙경,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02707)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77, Tel: 02-910-6371, E-mail: sknam@kookmin.ac.kr

Copyright ©2023, Korean Association of School Psycholog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청소년기는 아동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또래 관계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또래로부터 얻는 지원과 인정, 이해가 매우 중요해지는 시기로(이은희, 2005) 또래들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해진다. 청소년은 또래관계를 통해 성공적인 사회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들을 획득하고 연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의 안정적인 또래관계는 이후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예측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한다(Teja & Schonert-Reichl, 2013).

2021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청소년백서 및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상담통계’를 살펴보면, 2020년도에 청소년이 호소하는 주요 문제는 대인관계(21.5%), 정신건강(19.9%), 학업·진로(12.9%), 가정(1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인관계 문제는 2015년(22.4%) 이후부터 꾸준히 1위를 차지하고 있어, 또래 관계가 현대의 청소년들에게는 가장 큰 고민거리며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짐작해볼 수 있다.

청소년은 아동들에 비해 또래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고, 특정 또래와 친밀한 우정관계를 형성하게 되면서 그들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김성희, 정옥분, 2011). 청소년은 성인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비해 또래와는 기초적으로 평등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이 관계에서 독특한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된다(김진경, 유안진, 2002). 예를 들어, 청소년은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고,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며 자연스럽게 함께 나누고 참여하는 것을 학습하게 된다(전숙영, 2014). 특히 또래관계는 청소년의 심리적 행복은 물론, 심리사회적 발달, 사회인지적 성장, 사회 기술의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조영주, 최해림, 2001; Bowker, Nelson, Markovic, & Luster, 2014).

또래관계의 질은 또래 간에 서로 공유하는 활동을 통해 사회적·정서적·수단적 요구가 충족되는 정도를 의미한다(이은혜, 고윤주, 2004). 또래 안에서 인기가 있는 아동이라도 또래관계의 질이 낮을 수 있으며, 반대로 양적으로 측정하는 또래 수용도는 낮더라도 소수의 친구와 친밀함을 나누며 질 높은 우정관계를 경험할 수 있다(허미옥, 2014). 일부 또래들로부터 소외되었다더라도 소수의 또래와 질 높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문제행동을 덜 나타낸다는 연구결과나(조주연, 도현심, 2011; Waldrip, Malcolm, & Jensen-Campbell, 2008) 소수의 친한 친구가 또래 괴롭힘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보고처럼(배재현, 최보가, 2001) 또래관계에 대한 양적 접근만으로는 또래관계와 관련한 발달상의 문제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Bukowski, Boivin, & Hoza, 1994), 또래관계를 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청소년의 발달을 이해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대한 질적인 측면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또래관계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이 연구되어 왔다. 이 변인들을 살펴보면, 부모 갈등, 부모 양육태도, 부모지지, 가족 상호작용과 같은 가족요인들과 내면화된 수치심, 관계적 공격성, 또래관계기술, 자아분화와 같은 개인내적요인들이 있다. 이상균(2005)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개인적 요인, 학교요인을 통제하고도 가족요인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또래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중에서 가족요인이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요인 중에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또래관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아이가 태어나 최초로 맺는 인간관계로 다른 어떤 인간관계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성장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부모와 자녀의 건강한 관계 형성은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자녀의 감정이나 행동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통제는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자녀의 문제행동과 부적응 행동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오지인, 2017).

특히, 연구자들은 부모가 아동을 대하는 방식보다는 아동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Grych, Seid, & Fincham, 1992). 이는 부모의 실제 양육방식과 자녀가 지각한 것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제로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보다 자녀가 지각한 방식이 자녀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유양숙, 1995). 즉 부모의 통제에 대한 자녀의 지각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Barber(1996)는 이와 같은 부모의 통제를 행동통제와 심리적 통제로 구분하였다. 특히 부모가 자녀의 생활에 대한 규칙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을 지도·감독하는 과정인 행동통제(Barber, 1996)과 달리,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가 원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때 자녀에 대한 애정을 철회하거나 자녀에게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등 자녀의 개인적·심리적인 영역에 부모의 영향력을 지나치게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Barber, 2002). 따라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부모가 자녀의 정서적·심리적 욕구에 적절하게 반응하기보다는 비반응적이고 상황에 따라 자녀에게 조건적인 관심을 주거나(Maccoby & Martin, 1983), 부모가 자녀에게 과도하게 밀착되어 자녀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심리 그리고 사회적 영역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통제로 자녀 또한 부모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므로 다른 사람들과의 원만한 상호작용을 할 수 없게 된다(신선미, 이소연, 2016). 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는 부모에게서 독립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정서적 단절과 같은 회피 전략을 사용하게 하고(김유리, 김희정, 2013), 궁극적으로 타인으로부터 거리를 두게 하여 대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Barber, 1996). 실제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자녀는 부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여 또래관계의 질이 낮아졌다(조주연, 도현심, 2011). 따라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또래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아분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모변인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 속에서 성장한 자녀는 안정적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자아 탐구에 방해를 받으며 건강한 자아 인식과 지각발달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김세동, 박미화, 2020). 또한 자녀는 타인과의 건강한 소통이 부족하게 되고 자율성 발달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다(Barber, 1996). 즉 자녀가 부모와 분리되어 독립된 자기 자신을 찾는 과정에 혼란을 일으키고, 자율성을 저해하기에 자녀의 자아분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소희, 이재림, 2014; 김진영, 박승민, 2012; 심순구, 홍정순, 2018; 장경문, 2011, 2014; 홍원표, 2013). 이와 같이 청소년기 건강한 발달을 위해 중요한 자아분화가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여러 연구들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즉,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자아분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을 예측할 수 있다.

한편,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영향을 받는 자아분화 역시 또래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분화란 아동이 서서히 어머니와의 융합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의 정서적 자주성을 향해 나가는 장기적인 과정으로(Bowen, 1976; Kear, 1978), 개인이 정서와 사고를 분리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자기가 태어난 원가족으로부터 개별화된 정도를 의미한다(박원진, 2019). Bowen(1978)은 개인의 역할이나 집단 내에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설명하면서 자아분화를 개인내적 차원과 대인 관계적 차원으로 나누어 정의하였다(김윤이, 2016). 우선 개인내적 차원에서의 자아분화는 자신의 사고와 감정을 분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개인의 지적 기능이 정서적 기능과 얼마나 잘 분화되어 있는가의 정도를 의미한다. 대인 관계적 차원에서의 자아분화는 자신과 타인을 분리시키는 능력을 말한다. 가족과 사회적 관계 사이에서 자아를 유지하고 견딜 수 있는 능력, 자신의 자아를 타인의 정서에 융합하지 않고서도 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Bowen & Kerr, 1988).

개인 내적 분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청소년은 객관적인 사고보다 본능적인 충동에 따른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스트레스나 갈등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부적응적 행동이나 여러 가지 심리적 증상에 취약하다고 하였다(김윤이, 2016). 낮은 개인내적 분화는 감정적인 세계에 살게 하고 외부반응에 민감하게 만들어 형제관계, 가족 및 또래관계와 같은 사회적 관계에서 건강하게 기능하지 못하게 하여 대인 관

계적으로도 분화를 하지 못하게 한다. 이는 개인내적 자아분화가 대인 관계적 자아분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사고와 감정 사이에서 분화되지 못한 개인은 대인관계에서도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아분화가 낮은 사람은 불안, 긴장을 많이 느끼고, 증가된 긴장은 생리적·신체적·감정적인 증상을 일으켜 나중에는 사회적 비행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조성현, 2012; 홍성희, 2014). 또한 독단적이고 권위적이며, 공격적이고 불평과 의심이 많은 대인관계 성향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남연희, 2008).

대인 관계적 측면에서 자아가 분화되지 못한 사람은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쉽게 동조되며 타인으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원하고 공격이나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삶을 산다(김수진, 2018). 반대로 자아분화가 잘 이루어진 사람은 타인과 외부세계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지각하며, 타인과 정서적 융합을 이루지 않고 목표 지향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산다(Bowen, 1982). 송화숙(1996)은 자아분화와 대인관계와의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에서 자아분화는 상호의존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으며, 자아분화수준이 낮은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지나친 배려를 보인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들을 살펴볼 때 자아분화는 대인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래관계에서도 역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분화가 잘 이루어진 사람은 다른 사람과 정서적으로 안정된 관계를 맺으며(김정택, 심혜숙, 1993), 역기능적인 행동을 덜 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경연, 심혜

숙, 2007). 뿐만 아니라, 자아가 잘 분화된 아동은 자율적이면서도 또래 친밀감이 높은 모습을 보여 질 높은 또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정경연, 심혜숙, 2007). 그러나 자아가 잘 분화되지 못한 아동이나 청소년은 또래관계에서 정서적으로 융합된 모습을 보이며, 일방적으로 타인의 뜻에 따르고 자기입장을 잘 표현하지 못하였다(배미예, 이은희, 2009; 정경연, 심혜숙, 2007). 즉, 자아분화는 부모-자녀관계와 또래관계라는 사회적 관계의 두 축과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자아분화는 또래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또래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이영효, 정주리, 2018; 장호연, 장진이, 2017) 자녀의 자아분화에도 영향을 미치고(김수진, 2018; 심순구, 홍정순, 2018), 자아분화는 또래관계의 질에 영향을(심혜숙, 정경연, 2007; 전미량, 김재철, 2016) 미치는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종합해 볼 때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의 질 사이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매개효과를 가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는 또래관계의 질에 미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직접적인 영향력만 분석하였거나(이영효, 정주리, 2017),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의 질 사이에서 사회적 위축(신선미, 이소연, 2017), 정서표현 양가성(이영효, 정주리, 2018), 관계적 공격성(이종희, 2012) 등이 매개하는 연구들만 있을 뿐 자아분화를 매개변인으로 하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한국의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학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따라서

학교에서 마주하는 또래관계의 질은 이들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며, 이들이 느끼는 또래관계의 질이 삶의 질과도 연결될 수 있겠다. 그렇기에 이들의 또래관계 질을 높일 수 있는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학생은 자율성의 욕구가 증가하고, 자아정체성을 탐색하기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로(Arnett, 2015; Erikson, 1968), 이 시기의 또래관계는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중요한 맥락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아동기의 또래관계와는 차별성을 지닌다(마한나, 2017). 그렇기에 중학생의 또래관계는 평등한 사회적 관계를 정립하는 출발점으로써 청소년의 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Sullivan, 1953). 그러므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또래관계에 대한 연구는 또래관계 질을 높이고 이를 위한 개입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 자아분화, 또래관계의 질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의 질 사이에서 자아분화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아분화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또래관계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연구 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고,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아분화 수준, 또래관계의 질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의 질 사이를 자아분화가 매개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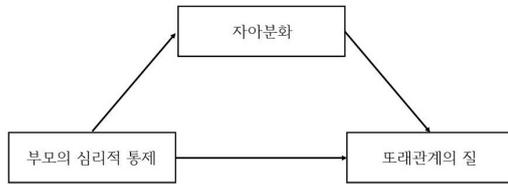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자료 수집을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 기관에 설문조사를 의뢰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만 14세 이상의 중학생 패널 중 300명에게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들에게 설문 문항을 제시하기 전에 설문 의 응답 내용이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과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 등에 관한 내용을 안내 후 동의한 학생들에 한해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은 익명으로 이루어졌으며 성별과 학년, 나이 이외의 개인 정보는 수집하지 않았다. 성별은 남학생이 138명(46%), 여학생이 162명(54%)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중학교 2학년은 40명(13.3%), 3학년은 260명(86.7%)이었다.

측정도구

부모의 심리적 통제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측정하기 위하여 Barber(1996)가 개발한 심리통제 척도(Psychological Control Scale-Youth Self-Report: PCS-YSR)를 최명진(2010)이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

는 총 16문항으로 6개의 하위요인(자기표현 제한, 감정 불인정, 비난, 죄책감 유발, 애정철회, 불안정한 감정기복)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일한 문항들에 대해 청소년이 자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각각 측정하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부모 모로 나누지 않고 전체로 측정하였다. 최명진(2010)의 연구에서 부, 모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각각 .89, .92로 나타났다. 전체로 측정 사용한 김하얀과 심혜원(2018)의 연구에서는 .92로 나타났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4로 나타났다.

자아분화

자아분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Bowen의 가족체계이론을 토대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제석봉(1989)이 제작하고 타당화한(제석봉, 2002) 자아분화 척도 36문항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정 보완한 최인재(2007)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인지 대 정서기능 7문항, 자아통합 6문항, 가족투사과정 6문항, 정서적 단절 5문항, 가족퇴행 12문항의 5가지 하위척도로 나누어진다. 각 하위요인들은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인지 대 정서기능의 분화는 인지적 체계가 정서적 체계와 분리된 정도 즉, 자기감정의 통제와 조절능력을 의미하며, 자아통

합은 타인이나 어떤 상황으로부터 정서적 압력을 받았을 경우에 자신의 신념과 생활원칙을 견지하는 정도를 나타낸다(김윤이, 2016). 가족투사과정은 부모의 미분화 특성을 특정 자녀에게 투사하는 과정을 나타내며, 정서적 단절은 가출, 고립 및 부정 등의 방법으로 부모나 자신의 과거로부터 단절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김윤이, 2016). 마지막으로 가족퇴행은 가족의 위기상황 시 가족구성원들이 역기능적인 갈등처리방법으로 대처하는 경향을 나타낸다(최인재, 2007).

역 채점 문항들은 역 채점한 후 각 하위요인 점수를 합한 것이 총 자아분화 점수를 나타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분화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석봉(2002)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2로 나타났으며, 최인재(2007)의 연구에서는 .86 한방미(2015)의 연구에서는 .88로 나타났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9로 나타났다.

또래관계의 질

또래관계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Furman과 Buhrmester(1985)가 개발한 NRI(Network of Relationships Inventory), Parker와 Asher(1993)의 Friendship Quality Questionnaire(FQQ), 김진경과 유안진(2002)의 척도 등을 참고하여 청소년에게 맞게 문항을 구성하고 타당화한 배성만, 홍지영, 현명호(2015)의 청소년 또래관계 질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문항은 상호친밀감, 사회적지지, 또래관계 만족으로 구성된 긍정적 또래관계 8문항과 갈등과 대립, 일방적 주도, 철회·고립의 부정적 또래관계 5문항, 총 13문항이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로 4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부정적인 문항은 역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가 지각하는 또래관계 질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배성만, 홍지영, 현명호(2015)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5로 나타났으며, 이 척도를 사용한 정하늬(2019)의 연구에서는 .86으로 보고되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4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21.0 프로그램과 SPSS PROCESS macro 3.4를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부모의 심리적 통제, 자아분화, 또래관계의 질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자료의 정규성 가정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왜도 및 첨도를 산출하였다. 둘째, 각 변인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또래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SPSS PROCESS macro 3.4의 모델 4를 이용하여 자아분화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서 부트스트랩(bootstrap)을 실시하였다.

결 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 자아분화, 또래관계의 질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대상자의 부모의 심리적 통제, 자아분화, 또래관계의 질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변인들의 평균을 보면 부모의 심리적통제가 2.43, 자아분화가 3.37, 그리고 또래관계의 질이 3.04로 나타났다. 연구 자료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한 왜도와 첨도 결과를 보면, 왜도는 .14에서 .44까지 분포하였고, 첨도는 -.15에서 -.51까지 분포하여, 정규성에 위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또래

관계의 질($r=-.33,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자아분화($r=-.64, p<.01$)와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자아분화와 또래관계의 질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자아분화와 또래관계의 질의 경우, 자아분화는 또래관계의 질($r=.39,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자아분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또래관계의 질도 높아짐을 의미한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의 질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검증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또래관계의 질에 영

표 1. 기술통계 및 변인 간 상관관계

	부모의 심리적 통제	자아분화	또래관계의 질
부모의 심리적 통제	1	-	
자아분화	-.64**	1	-
또래관계의 질	-.33**	.39**	1
평균(표준편차)	2.43(.83)	3.37(.50)	3.04(.45)
왜도	.44	.14	.21
첨도	-.15	-.51	-.22

** $p < .01$

표 2.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의 질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준거변인	예측변인	B	se	β	t	R^2	95% CI(신뢰구간)	
							LLCI	ULCI
자아분화	부모의 심리적 통제	-.39	.02	-.65	-14.38***	.42	-.4456	-.3383
또래관계의 질	부모의 심리적 통제	-.07	.04	-.13	-1.77	.17	-.1433	.0075
	자아분화	.28	.06	.32	4.47***			

*** $p < .001$

향을 미치는데 있어 자아분화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모델 4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각 경로들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 결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아분화에는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65, t = -14.38, p < .001$), 또래관계의 질($\beta = -.13, t = -1.77, p > .05$)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분화는 또래관계의 질($\beta = .32, t = 4.47, p < .001$)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많이 지각한 자녀일수록 자아분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 자아분화수준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또래관계의 질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아분화는 또래관계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서 자아분화가 잘 이루어진 청소년일수록 또래관계에 있어서 질 높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또래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자아분화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

(bootstraooing)을 실시하였고(Shrout & Bolger, 2002), 결과는 표 3과 같다. 분석 결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아분화를 경유하여 또래관계의 질에 이르는 경로의 간접효과는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과 상한값(-.17 ~ -.06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1, p < .001$). 이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아분화를 통해서 또래관계의 질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또래관계의 질로 가는 직접효과는 95%의 신뢰구간에서 -.14에서 .01로 나타났으며 0을 포함하고 있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또래관계의 질로 가는 경로에서 총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고 간접효과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자아분화가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의 질에 사이에서 완전매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종합해보면,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아분화, 또래관계의 질의 관계에서 자아분화를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의 질 간 직접적인 경로가 존재하지만,

표 3. 자아분화의 간접효과 검증을 위한 부트스트래핑 결과

경로	Effect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총효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 → 또래관계의 질)	-.18	.03	-.24	-.12
직접효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 → 또래관계의 질)	-.07	.04	-.14	.01
간접효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 → 자아분화 → 또래관계의 질)	-.11	.03	-.17	-.06

LLCI: 95% 신뢰구간 내 하한값

ULCI: 95% 신뢰구간 내 상한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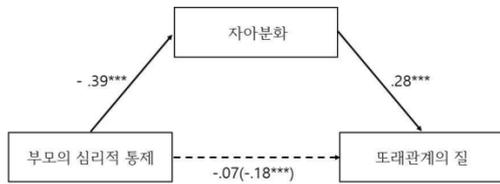


그림 2.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의 질 사이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자아분화를 투입하였을 경우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의 질 간의 직접적인 경로는 사라지고, 간접적인 경로만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즉, 부모의 심리적 통제, 자아분화, 또래관계의 질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또래관계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자아분화를 통해서만 자녀의 또래관계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논 의

본 연구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된 자료를 통하여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의 질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또래관계의 질 향상을 위해 상담 및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변인인 부모의 심리적 통제, 자아분화, 또래관계의 질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변인들이 서로 유의미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먼저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또래관계의 질과 유의미한 부적 상

관을 보였다. 즉, 학생들이 부모의 개인적·심리적인 영역에 지나친 영향력 행사와 같은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또래관계의 질은 낮은 수준으로 보고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이 부모가 심리적 통제를 많이 한다고 지각할수록 또래관계 질이 낮아지고, 사회적인 위축 행동도 증가시켜 또래관계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신선미와 이소연(2016)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또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 질의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 결과들(이영호, 정주리, 2017; 이은정, 2018; 장호연, 장진이, 2017)과도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아분화와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한 청소년은 자아정체감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보이고, 부모와 분리되어 독립된 자신을 찾는 과정에서 혼란을 일으키며 자율성을 저해 받아 자아분화 증진에 어려움을 보일 수 있다. 이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하는 자녀일수록 자아분화가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많이 경험한 청소년은 부모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구분하지 못함으로써 부모와 자신을 분리하지 못한 채 부모와 융합하게 되어 자아분화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형성하는데 있어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결과적으로 자아분화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선행연구들(권소희, 이재림, 2014; 심순구, 홍정순, 2018; 홍원표, 2013)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자아분화와 또래관계의 질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자아분화 수준이 낮으면 자신과 타인을 분리하지 못하고 타인과

정서적으로 융합된 모습을 보여 건강한 또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게 되나, 자아분화가 잘 이루어지게 되면 타인의 정서에 융합하지 않고서도 자율적이면서도 건강한 또래관계를 형성하여 또래관계의 질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자아분화가 또래관계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양영화와 정주리(2018)의 연구결과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둘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의 질의 관계에서 자아분화가 매개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의 질의 관계에서 자아분화가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자아분화가 낮아지고, 낮아진 자아분화는 또래관계의 질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의 질의 관계에서 자아분화가 투입 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또래관계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자아분화를 통해서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매개효과의 경험적 근거인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아분화에 유의미한 부적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이영효, 정주리, 2018; 장호연, 장진이, 2017)와 자아분화가 또래관계의 질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심혜숙, 정경연, 2007; 전미량, 김재철, 2016) 결과들을 반영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한 청소년들이 낮은 또래관계의 질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자아분화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부모로부터 심리적인 통제를 받으며 자란 자녀들은 부모와의 정서적 융합상태에서 벗어나 독립된 개

체로서 건강하게 기능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발달하지 못하게 하여 자아분화 수준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여(장경문, 2014), 자녀가 개인내적으로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분리하지 못해서 본능적인 충동에 따라 반응하게 하고, 대인 관계적으로도 타인과 자신을 분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타인의 인정을 위해 타인에게 쉽게 동조하게 되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또래관계에서 낮은 만족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록 자녀가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경험하더라도 만약 자아분화가 잘 이루어진다면, 또래관계에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정서적 자발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또래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정경연, 심혜숙, 2007) 질 높은 또래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말해준다. 지금까지 연구결과를 통해 자아분화가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의 질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으며, 이는 중학생의 또래관계의 질을 높여 줄 수 있는 개입방법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로 인해 낮은 또래관계의 질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을 상담할 때 자아분화에 초점을 두고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또래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요인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개인내적요인인 자아분화를 같이 살펴본 것에 의의가 있다. 특히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중학생의 자아분화 및 또래관계의 질의 세 가지

변인을 모두 살펴본 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중학생의 자아분화, 또래관계의 질 사이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부모-자녀 관계가 또래관계의 질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중학생의 또래관계의 질을 낮추는 원인에 대한 이해와 함께 또래관계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개입에 관한 방향성을 제시해준다.

둘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의 질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자아분화를 새롭게 밝히고, 나아가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의 질 사이에서 자아분화가 완전매개하는 것을 밝혀 자아분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의 질 사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정서표현의 양가성(이영효, 정주리, 2018)과 사회적 위축(신선미, 이소연, 2017),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자기개념 명확성(전소영, 2021)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자아분화가 둘 사이를 매개하는지를 본 매개효과 연구는 없었다. 자신을 부모에게서 분리하고 독립된 개체로서 자아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것은 청소년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과업이다. 그러나 부모의 심리적 통제로 인해 자아분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타인에 대한 적대감이 심하게 되고 분노나 공격성과 같은 부정정서를 드러내게 될 뿐만 아니라(김보현, 1999),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해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맞추는(송화숙, 1996) 등 타인과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할 수 없어 또래관계의 질은 더욱 떨어지게 된다. 반면, 자아분화가 잘 이루어진 경우는 높은 자아분화를 바탕으로 또래와 건강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 또

래관계에 있어서 만족도가 높아지게 된다. 이는 상담 장면에서 중학생의 또래관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아분화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자아분화를 높이기 위한 상담 내에서의 개입방법으로는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를 언어로 표현해내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배운 것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적절한 정서적 방략을 함께 탐색하여 부정적인 정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사회적 기술을 익히도록 하는 것이 자아분화의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연구결과에서 같이 자아분화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아분화 수준을 올리는 일은 개인의 일만은 아니다. 이는 자녀의 자아분화를 높이기 위해 부모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부모상담이나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들이 그들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고 나아가 또래관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자녀의 자아가 타인의 정서에 융합되지 않고 건강하게 분리·독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부모의 역할에 대해 통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자녀의 원만한 대인관계능력 향상에 대한 바람직한 양육방법을 부모에게 안내하고 방법을 제시해 주는 등의 개입 등이 청소년의 또래관계의 질을 높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며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표본 모집에 대한 제한이 있어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만 14세 이상의 중학생 패널에게 설문조사를 하여서 중학교 1학년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때문에 설문 응답의 연구 결과를 모든 중학생에게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표성과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모든 학년 대상 중학생들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그리고 고등학생들로 표집 대상을 확대하고, 성별, 학년 이외의 지역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특성 등을 함께 고려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기에 설문 참여한 대상자들의 방어적인 태도,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과 문항에 대한 낮은 자기 이해도에 기인한 왜곡된 응답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여 심층적면서 연구결과와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사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측정할 때 부와 모를 분리하여 보지 않았기에, 후속 연구에서는 부와 모를 분류하여 각각의 심리적 통제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부모의 자기표현 제한, 감정 불안정, 비난, 죄책감 유발, 애정 철회, 불안정한 감정기복이라는 여섯 가지 하위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대해 세분화하여 보지 않았다. 또한 본 연구는 측정오차를 고려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살펴보지 못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잠재변수를 바탕으로 하는 구조방정식을 통해 하위 요인별로 좀 더 유의미한 차이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나 자아분화 척도의 경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수정 보완한 선행연구들의 문항들을 바탕으로 하였으나, 기존 척도들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문항이 아니기에, 후속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 문항들의 적합도를 재검증하는 후속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또래관계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의 자아분화 증진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상담개입 전략 등 실제적 접근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동안 자아분화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Bowen(1982)의 자아분화 이론을 중심으로 개발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 대상은 알코올 중독자 자녀(이선화, 2004), 부부(김정애, 2006), 부모(정희정, 2001) 등이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학교현장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자아분화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권소희, 이재림 (2014).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5), 41-61.

김보현 (1999). *고등학생의 자아분화 및 자아존중감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성희, 정옥분 (2011).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과보호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및 또래관계: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중*

- 심으로. 인간달연구, 18(3), 69-92.
- 김세동, 박미화 (2020).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홀리스틱융합교육연구*, 24(2), 77-96.
- 김수진 (2018). *학령후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행동적 통제가 또래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한양대학교 일반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리, 김희정 (2013).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 자녀의 정서적 단절의 관계. *상담학연구*, 14(5), 3041-3064.
- 김윤이 (2016). *아동의 자아분화와 친구 간 갈등 해결전략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애 (2006). *부부의 자아분화 향상 프로그램 개발*. 한남대학교 학제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경, 유안진 (2002). 시설거주여부,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초기 청소년의 의사소통 기술과 또래 관계 질. *아동학회지*, 23(2), 121-135.
- 남연희 (2008).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및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청소년 대인관계 성향 간의 관계 분석*.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마한나 (2017). *중학생의 부모애착과 또래관계의 질의 관계: 감사성향과 인지적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원진 (2019). *주 양육자의 자아분화와 자아존중감이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의 또래 간 갈등해결 전략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미예, 이은희 (2009).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대인 관계 및 우울/불안 간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20(1), 85-112.
- 배성만, 홍지영, 현명호 (2015). *청소년 또래관계 질 척도의 타당화 연구*. *청소년학연구*, 22(5), 325-344.
- 배재현, 최보가 (2001). *청소년의 또래 괴롭힘과 우정의 질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1), 159-171.
- 송화숙 (1996). *상호의존과 자아분화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선미, 이소연 (2017).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 질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놀이치료연구*, 20(1), 49-64.
- 심순구, 홍정순 (2018).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열린부모교육연구*, 10(1), 163-182.
- 심혜숙, 정경연 (2007). *아동의 자아분화가 불안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8(1), 282-297.
- 양영화, 정주리 (2018). *모 자아분화가 자녀 자아화와 모-자녀관계를 통해 아동의 또래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5(3), 361-378.
- 여성가족부 (2020). *청소년백서 및 한국청소년상담 복지개발원 상담통계*.
- 오지인 (2017). *중·고등학생의 부모 심리적 통제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공격성 및 공감의 매개효과 검증*.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양숙 (1995).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아동의 인지양식과 정서대응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균 (2005). 청소년의 또래폭력 가해경험에 대한 생태 체계적 영향 요인. *한국아동복지학회*, 19(5), 141-170.
- 이선화 (2004). *알코올중독자 자녀의 자아분화 향상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의 개발*.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효, 정주리 (2017). 초등학교 고학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기술이 또래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 성차를 중심으로. *교육연구*, 39(2), 85-101.
- 이영효, 정주리 (2018).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후기 아동기 자녀의 또래관계 질의 관계: 아동의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지*, 26(2), 47-65.
- 이은정 (2018).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중학생의 또래관계와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혜, 고윤주 (2004). 또래 괴롭힘에 관련된 아동의 친구관계와 자아지각. *아동학회지*, 25(14), 1-16.
- 이은희 (2005). *청소년의 친구관계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희 (2012).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관계적 공격성의 매개효과.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경문 (2014). 청소년의 자아분화 수준, 부모 통제에 대한 지각과 심리 및 행동문제의 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5(2), 845-854.
- 장호연, 장진이 (2017).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관계적 공격성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3), 871-891.
- 전미량, 김재철 (2016).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갈등이 자아분화를 매개로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교육연구*, 24, 151-177.
- 전소영 (202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 질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적 자기 제시와 자기개념 명확성의 순차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숙영 (2007).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행동문제-학령기 후기 아동의 정서적 자율성의 매개효과에 대한 탐색. *대한가정학회지*, 45(6), 101-111.
- 정경연, 심혜숙 (2007). 부모 자아분화와 아동 자아분화 및 세대 간 가족관계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6(6), 119-133.
- 정하늬 (2019). 고등학생의 거부민감성과 또래관계의 질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희정 (2001). 보웬의 가족치료적 접근을 통한 부모의 자아분화향상 프로그램.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성현 (2012).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인지적 정서조절이 갈등해결 전략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영주, 최해림 (2001). 부모와의 애착 및 심리적 독립과 성인애착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13(2), 71-91.
- 조주연, 도현심 (2011). 부모간 갈등, 어머니의 지지 및 통제와 또래관계의 질이 고등학생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아동학회지*, 32(2), 15-34.
- 제석봉 (1989). 자아분화와 역기능적 행동과의

- 관계: Bowen의 가족체계이론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제석봉 (2002). 자아분화와 부부적응과의 관계. *상담학연구*, 3(1), 171-184.
- 최명진 (2010). 심리적 통제와 안녕감의 관계에서 갈등적 독립의 매개효과 검증. *아주대학교 일반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인재 (2007).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청소년기 자녀의 자아분화 및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3), 611-628.
- 허미욱 (2014). 의사소통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또래 관계 질 향상에 미치는 효과. *공주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성희 (2014). 청소년이 지각한 모애착이 학교 폭력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 매개 및 자기분화 조절 효과 검증. *성결대학교 일반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원표 (2013).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와 자아분화가 학습된 무기력에 미치는 효과.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rnett, J. J. (2015). Identity development from adolescence to emerging adulthood: What we know and (especially) don't know. In K. C. McLean, M. Syed, K. C. McLean, M. Syed (Eds.), *The Oxford handbook of identity development* (pp. 53-64). New York, NY, US: Oxford University Press.
- Bar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6), 3296-3319.
- Barber, B. K. (Ed.). (2002).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owen, M. (1976). Theory in practice of psychotherapy. In Guerin, P. J.(Ed.), *Family therapy*, Gardner Press. New York.
- Bowen, M. (1982).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Jonson Aronson.
- Bowen, M., & Kerr, M. E. (1988). Family evaluation: An approach based on Bowen theory. Markham, Ontario: Penguin Books.
- Bowker, J. C., Nelson, L. J., Markovic, A., & Luster, S. (2014). Social Withdrawal during Adolescence and Emerging Adulthood. In R. J. Coplan & J. C. Bowker (Eds.), *The handbook of solitude: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social isolation, social withdrawal, and being alone* (Vol. 10, pp. 167-184). New York: John Wiley & Sons.
- Bukowski, W. M., Boivin M., & Hoza, B. (1994). Measuring friendship quality during pre-and early adolescence: The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friendship qualities scal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1(3), 471-484.
- Erikson, E.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Furman, W. & Buhrmester, D. (1985).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personal relationships in their social networks. *Developmental Psychology*, 21(6), 1016-1024.
- Grych, J. H., Seid, M., & Fincham, F. D. (1992). Assessing marital conflict from the child's perspective: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Child Development*, 63(3), 558-572.
- Kear, J. (1978). *Marital satisfaction and attraction as a function of differentiation of self*. Unpublished

- doctoral dissertation, California School of professional of Psychology, Fresno Campus.
- Maccoby, E. E., & Martin, J. A. (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Parent-child interaction. In P. H. Mussen, & E. M. Hetherington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pp. 1-101). New York: Wiley.
- Parker, J. G., & Asher, S. R. (1993).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Links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s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4), 611-621.
- Sullivan, H. 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W. W. Norton.
- Teja, Z., & Schonert-Reichl, K. A. (2013). Peer relations of Chinese adolescent newcomers: Relations of peer group integration and friendship quality to psychological and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International Migration and Integration, 14*(3), 535-556.
- Waldrip, A. M., Malcolm, K. T., & Jensen-Campbell, L. A. (2008). With a little help from your friends: The importance of high-quality friendships on early adolescent adjustment. *Social Development, 17*(4), 832-852.
- Williamson, D. S., & Bray, J. H. (1988). Family development and change across the generations: An intergenerational perspective. In C. J. Falicov (Ed.), *Family transitions: Continuity and change over the life cycle* (pp. 357-384). New York: Guilford Press.

원 고 접 수 일 : 2023. 03. 02.

수정원고접수일 : 2023. 05. 16.

최종게재결정일 : 2023. 07. 13.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and the Quality of Their Peer Relationships: The Mediating Effect of Self-Differentiation

Ok Seon Lee¹⁾

Suk Kyung Nam²⁾

¹⁾Sindong Elementary School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

²⁾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okmin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whether self-differentiation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 middle school students and the quality of their peer relationships.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on 300 students in their second or third year of middle school. It included the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self-differentiation, and peer relationship quality scale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o determine whether there was a mediating effect using model 4 of SPSS 21.0 and SPSS PROCESS macro 3.4. There were two major results. The first major result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self-differentiation, and the 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was significantly negatively correlated with both self-differentiation and the quality of peer relations, and self-differentiation was significant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The second major result was that self-differentiation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the 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These findings confirmed the crucial mediating effect of self-differenti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peer relationship quality. This study generated primary data about intervention measures that can be used to improve peer relationship quality. This paper discusses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based on its results.

Key words : *Self-Differentiatio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The 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Middle School Students, Mediation Effect*